

민주·인권도시 광주서 세계로 보내는 평화 메시지



음악따라 흐르는 몸짓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한 무용수가 화려한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 특별취재단 최현배·김진수 기자



내일은 스타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기념해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시민어울림한마당행사에서 키즈팀의 댄스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물의 요정?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물의 요정이 생명을 품은 물을 찾고 있다.



열전 시작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막을 올린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참가국 기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다함께 춤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생명을 품은 물, 인류의 바다, 빛의 분수'라는 주제로 군무가 펼쳐지고 있다.